

정도령 출현을 알리는 소래산



위 왼쪽 사진은 부천무릉도원수목원. 부천은 복승아가 유명하여 복사꽃으로 불린다. 복승아는 무릉도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천생태공원 안에 이를 상징하는 무릉도원 조형물이 있다.

*할미산에서 본 소래산

아담한 소래산은 전설속의 불로초 꽃을 피우기 위해 소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신라 무열왕 7년(660) 당나라 소정방이 이 산에 머물렀다고 하여 소정방의 소(蘇)자와 래(萊)자를 합쳐 소래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생할 소(蘇) 올 래(來) 즉,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경인지방은 길지(吉地)다

도(道)를 닦는 사람들이나 진인(眞人)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지(吉地)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도인(道人)들이 많이 나왔다거나 진인(眞人)이 있다면 그들은 그곳을 찾아간다. 길지(吉地)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격암유록은 길지(吉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平沙三里十勝吉地(평사삼리십승길지) 즉 부평과 소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곳이라고 길지가에 예언하고 있다. 非山非野仁富之間(비산비야인부지간) 弔弓吉地傳(궁궁길지전)했지만,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가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는 길지라고 전해 내려왔다고 말중문에 예언하고 있다.

*소사(素砂)가 길지 중의 길지 십승지(十勝地)이다

그런데 격암유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부분에 “始終艮也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 즉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소사에서 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도부신인 편에는 “天崩地坼素砂立(천봉지탁소사립)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사에서 하늘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설의 무릉도원이 바로 부천의 소사(素砂)이며 격암유록과 성경은 소사에 정도령(이진자)이 계신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상향의 세계가 소사에 펼쳐진다

성경에도 소사(素砂)가 예언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진자가 받은 흰 돌이란 바로 소사(素砂)라는 지명을 뜻한다. 소(素)는 훨 소자이며 사(砂)는 모래 사자이다. 따라서 소사란 흰 모래를 뜻하며 모래는 돌이 부서져서 된 작은 돌이므로 소사(素砂)란 흰 돌이 된다.

*선조들의 예언이 참으로 놀랍다

승리제단은 소사(素砂)땅 역곡에 세워져 있다. 현재 승리제단 본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75-2이다. 이곳은 율곡 선생의 비기(秘記)에 人衆之地驛谷勝地(인중지지역곡승지)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곡은 이진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역곡(驛谷)이란 지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 율곡 선생이 이렇게 ‘역곡이 이진자가 계시는 곳’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선조들의 혜안에 놀라울 따름이다.

*소사에서 지상천국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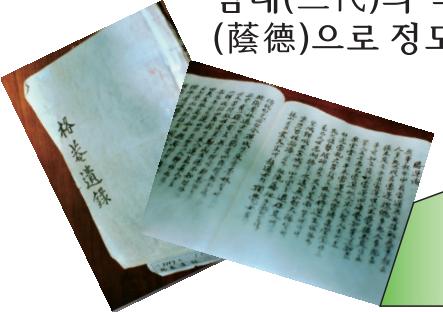
성경과 격암유록에 예언된 대로 하늘의 역사를 소사에서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도령이 이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30리에 이제 궁전을 크게 다이아몬드로 짓는데 그 궁전 안에는 천당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2003.1.1 말씀중에서)



무릉도원에는 불로불사의 영약이 있는데 이를 감로(甘露)라고 하며 계속해서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하였다.

무릉도원은 한국땅 부천 **소사(素砂)**에 있다

三代積德之家 外는 人力으로 不求라네
삼대적덕지가 외 인력 불구
삼대(三代)의 덕(德)을 쌓은 조상의 음덕
(蔭德)으로 정도령을 만나게 되어 있다.



무릉도원과 불로초에 대해
격암유록은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정도령 조희성 님은 1981년 8월 18일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소사(素砂) 역곡(驛谷) 땅에 승리제단을 세워서 하늘의 백성을 양육하고 있다. 정도령 님은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지상 천국을 세우는 공사를 이루실 것이다. 지상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로서 정도령 님이 발(發)하는 빛을 받아 영생하는 의인들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모든 예언서와 경전에는 사람이 신선으로 거듭나서
죽지 않는 신선세계를 이룬다고 예언하고 있다

불로불사의 지상선국은 터무니없는 공상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할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펼쳐진다면 과연 어디일까? 그 세계가 이루어질 장소가 대한민국이라고 여러 기록에는 나타나 있다. 중국의 사기(史記) 또는 산해경(山海經)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동쪽 발해에 신선(神仙)들이 살고 있는 신산(神山)이 있는데 그곳에는 불로불사(不老不死)하는 선약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또 중국의 사기에는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삼신산이 있는 조선(고조선) 땅에 동남동녀 500쌍을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족 대예언서 격암유록에는 그곳이 소사라고 밝히고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먹을수 있는 불로초(不老草)

태고시황(太古始皇) 꿈을꾸던 불로초(不老草)와 불사약(不死藥)
이 무도대병(無道大病) 걸린자들 만병회춘(萬病回春)시키려고
편만조아나릴때도 궁을외(弓乙外)는 불구(不求)로서
동해삼신불사약(東海三神不死藥)은 삼대적덕지가외(三代積德
之家外)는 인력(人力)으로 불구(不求)라네 지성감천구(至誠感
天求)한다네. -격암유록 궁을도가(弓乙圖歌)-



이 예언은 불로초(不老草)와 불사약(不死藥), 즉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무도대병(無道大病)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지만 삼대(三代)의 덕(德)을 쌓은 조상의 후손(後孫)만이 구(求)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人力)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예언이다.

온 인류가 갈망하는 죽지 않는 명약이 바로 감로(甘露)이며 이것
이 바로 화우로 삼풍해인(火雨露 三豐海印)이며 생명수이다.

생명의 젖을 먹고 무력무력 자라 영생의 몸(神人)으로 화하여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무릉도원이자 낙원이다. 부천시의 시화(市花)가 복숭아꽃이며 부천을 복사골로 부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부천이 무릉도원이 건설될 곳임**을 알린 것이다.

종교와 이념은 달라도 인간의 목적은 같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있는 낙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다.



승리제단의 근본은 자유율법이요, 열매는 부처님으로 성불이다.
[Http://victor.or.kr](http://victor.or.kr)

본부제단: 032-343-9981~2, 032-349-7469
부산:(051) 863-6307, 마산:(055) 241-1161
진해:(055) 544-7464, 대전:(042) 522-1560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05번길 37 (괴안동)
1호선 전철 1번 출구 나와 홈플러스에서 150m
버스 12번, 75번, 88번, 92번, 905번 등 역곡고가 하차
예배는 오전 09시, 19시, 일요일은 13시

